

5.관광지의 품질향상에 대하여

(1)관광의 품질관리

○중국에서 작년 10월에 부당염매 방지 등 관광객 보호방침을 내놓은 관광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에서도 상품과 서비스 질의 확보, 관광객의 권리보호와 관광객의 쇼핑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취할지가 과제다.

(중국, 둥잉시 / 한국, 경기도)

○관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배우려 했으나 앞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서로 배워야 될 시기가 왔다는 느낌이다. 관광지의 품질을 논의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냈으로써 동아시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어 마켓으로부터 주목받는 품질을 발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 나라현)

(2)지역의 본질적인 가치와 매력

○나라현내에서도 여성 기업가가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그룹이 있다. ‘이 지역에서 더불어 활동’하려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활동도 하나의 관광진흥이라고 생각하여 행정에는 지역활성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기대한다.

(일본, 나라현의회)

○ ‘가치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농촌부의 잠재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나가노현에서는 ‘국제청소년교류농촌 선언’을 표명하여 아름다운 농촌에서 어린이들의 교류를 장래의 교류로 이어가려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농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일본, 나가노현)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연유산과는 달라 문화유산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 있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하여 자각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일본, 나라현)



총괄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대표·정부인정 관광카리스마

재 방문 하는 관광객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대만족’이라고 평가한 관광객들뿐이다.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매출을 올리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히어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광객의 앞으로의 기대치를 파악하여 그 기대를 능가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의 역할은 지역경영이며 에리어 매니지먼트와 마케팅이다. 그 가운데 관광산업을 어떻게 자리매김할지가 관건이다. 관광뿐만 아니라 상공업과 농림수산업 등 산업간 연계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의 장점을 살린

상품개발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관광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대전제이며 지역내의 현금 흐름과 2차적, 3차적인 경제파급효과까지 철저히 감안한 산업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지역의 경제 피라미드 면적이 확대되고 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라미드의 정점을 높이는 것이 지역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또한 다른 지역이나 조직과 연계할 경우 단순히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테마와 컨셉 등 함께 시책을 펼칠 토대가 필요하다.

제3자에 의한 평가는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관광객이 인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단, 평가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방법, 수단이며 지역에 맞는 형태로 평가를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에는 그 지역만의 좋은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 지역에서 발전해 온 문화는 그야말로 지역 고유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치를 지역주민들이 재인식하여 긍지로 삼음으로써 지역의 본질적인 리얼리티가 드러나 관광객의 평가로 이어진다. 지역의 장점을 살려갈 수 있을지 어떨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지역주민의 자세와 태도 그 자체가 관광진흥을 위한 관건이 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지역진흥에 있어서의 행정의 리더쉽에 대해서
—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 —

Hank LIM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 (ERIA)
학술자문회의 의장

2008년에 정식으로 설립된 ERIA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참가국은 ASEAN 10개국과 일본,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다. 아세안과 동아시아 서밋의 가맹국에 대하여 정책연구, 정책제언을 하는 국제조직으로서 2013년의 국제경제정책 싱크탱크 랭킹(182개국, 6826단체 참가)에서는 30위로 평가된 최고수준의 싱크탱크다.

ERIA의 ‘해조천도 1300년 기념 아시아 코스모폴리탄상’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는 상으로서 2012년에 제 1회 수상식을 나라현에서 개최하였다. 제 2회 수상식은 올해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진흥에 있어서의 행정의 리더쉽 요소로서는 ①정치적 사명과 정당성, ②정치적 비전, 리더쉽, 행정의 효율성, ③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소득의 재분배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행정에는 투명성, 설명책임, 법의 지배, 정부의 효율성, 질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외에 공무원과 행정, 사법과 분쟁해결 매커니즘, 민간부문, 시민사회, 미디어와 같은 제도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정책으로는 마크로 경제정책, 빈곤삭감, 사회 전체의 성장, 안정적이고 대담한 정책이 요구된다. 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국가는 단기적인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정부는 장기적인 시점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간의 균형이 맞음으로써 바람직한 통치가 된다. 나아가 협의와 콘센서스, 분쟁해결 메커니즘, 국가와 지방의 조정과 상승효과 등도 지역진흥의 정책요소로서 들 수 있다.

앞으로 글로벌화와 동시에 지역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정부가 상호 보완 및 연계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이 회합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광과 교육 분야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적인 시점에서서 평화와 번영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발전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엔 세계관광기관(UNWTO)
중점항목과 파트너십

제니퍼 스탕가

유엔 세계관광기관(UNWTO) 아시아태평양센터
사업·홍보부장

관광은 11명당 1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세계 GDP의 9%를 차지하며 많은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로 이어지는 주요 글로벌 산업이다. UNWTO는 관광분야에 있어서의 주요 국제기관으로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나라현장’과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해외여행객 수는 대폭 증가하여 1950년에 2,500만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 10억 800만명에 달하였다. 종래에는 유럽이 최대 시장을 차지했었으나 그 시장은 감소경향에 있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아시아 태평양에의 여행객 수는 2억 400만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3억 3,100만명 증가한 5억 3,5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UNWTO본부(마드리드/스페인)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관광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오사카에 UNWTO 아시아 태평양센터를 설치하였고 2012년에는 나라시로 이전되었다. 현재 UNWTO는 156개국 및 6지역의 회원과 400이상의 창조회원으로 구성되어 경제성장, 포괄적인 개발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로서의 관광진흥에 힘쓰고 있다.

UNWTO는 주요 활동의 하나로써 관광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장 동향분석, 통계, 위기관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나아가 그린 에코노미를 촉진하여 빈곤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래의 동향을 염두에 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창조회원 네트워크는 UNWTO의 선진적인 활동으로서 회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는 호스피탈리티, 운수, 의료,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술, 연구 부문의 글로벌, 국가, 지역, 학술, 공공 및 민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UNWTO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가맹회원의 새로운 전략과 정책 고안을 지원하고 있다.

동 회원의 메리트로는 관광통계의 정보원인 국제 데이터 및 전문지식에의 액세스, 관광행사예의 출석, 홍보활동 등이 포함된다. 마드리드(스페인)의 동 회원이 주최하는 시행적 활동인 ‘Precious Time’은 관광의 촉진, 상호이해의 조성, 경제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관민연계모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본 정보가 부디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가한 지방정부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는 7개국 41개 지방정부가 참가해 주셨다. 이 회합은 어떤 결론을 낸다든가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에는 ‘지역경제의 진흥’ ‘지역 만들기’ ‘관광진흥’이라는 3가지 관심있는 테마에 대하여 모타니 고스케 님, 모리치 시게루 님, 야마다 케이치로 님께서 강사를 맡아주셔서 그룹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광진흥’ 그룹에 동석하여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들었는데 매우 참고가 될 만한 것이었다. 모든 화제들이 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며 각 지역이 관광진흥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야마다

강사로부터는 이번의 의견교환 내용을 앞으로는 팀의 정책으로서 추진해 가면 어떨까 하는 어드바이스가 있었다. 이 회합은 서로에게 배움으로써 각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자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특별주 ————— 크리스티아나 스와스티
여성·지역강화위원회 위원장

욕야카르타 특별주는 인도네시아에 34개 있는 주의 하나이며 아름다운 자연, 문화, 음식 등을 자랑하는 관광명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꼭 한번 이곳을 방문하여 욕야카르타의 말고기 등을 기념품으로 가져가기 바란다.

토의에서는 일본에 인재부족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는 유능하고 일본어에 능통한 전문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인재를 파견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회합을 계기로 진전이 있다면 기쁘겠다.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 이브람 로즈랑 빈 개발담당주 부대신

이번에 처음으로 이 회합에 출석하였다. 우리 지역의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등 유익한 토론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훌륭한 환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말라카주정부를 대표하여 나라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말라카주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 충청남도 ————— 허 승욱 부지사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시대라고 하여 동아시아가 주체가 되어 세계를 리드해 간다고 한다. 그러한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서 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가치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아라이 지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 회합처럼 국내외 지방정부가 모이는 회합을 충청남도에서 개최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려한다. 또한, 보다 많은 나라들이 이 회합에 참가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 회합에 참가하여 각 지방정부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충청남도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시한번 이번에 참가하신 지방정부 대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베트남, 투아티엔 후에성 ————— 응웬 중
투아티엔 후에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후에시는 베트남의 옛 수도로 문화, 역사, 고도의료, 교육의 중심지다. 이번에 ‘관광진흥’이라는 테마에 참가하여 지역연계와 주민의 의식향상, 지역자원의 관광상품화와 같은 논의는 매우 참고가 되었다. 또한, 관광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았다.

유익한 회합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회합에서 나온 의견, 과제를 참고로 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앞으로도 이러한 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일본, 야마나시현 ————— 요코우치 쇼메 지사

이번에 처음으로 회합에 참가하여 3가지 테마로 나뉘어 동시통역을 통해 논의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헤이조쿄는 국제도시였다고 들었는데 그 무렵부터 나라지방에는 국제교류의 저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국가 차원에서는 종종 외교상의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일은 없다. 오히려 국가외교가 심각한 상황이면 일수록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민간교류, 시민차원에서의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 회합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유일한 지방정부 차원의 회의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셨으면 한다.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 수석연구원

‘지역경제의 진흥’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놓고 결실있고 감동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 지방정부의 상황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만큼 공통과제가 많았다.

공업화를 이룩한 일본에서는 농업과 임업, 지역산업을 어떻게 부가가치화 할까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업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의 농업과 임업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동남아시아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일본에서의 관광을 어떻게 산업화해 가면서 지역의 특산물과 결부시켜 갈까 하는 과제도 오랜 역사와 전통공예를 가진 동남아시아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공통된다. 이 과제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수법은 일본측 참가자의 큰 참고가 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독자적인 특성과 전통을 어떻게 보존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고도성장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옛 것의 소중함을 동남아시아 여러분들은 충분히 유념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외에서 참가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된 나라지역의 상황을 둘러보시고 참고로 삼으셨으면 한다.



모리uchi 시게루 정책연구대학원대학·정책연구센터 소장

오늘의 토의 내용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방재에 대해서는 상정 외를 없애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상정 외가 일어났을 때의 대응력을 어떻게 기를까 하는 것이 중점 과제였다. 그때 현과 시정촌의 연계방법이 중요하며 이에 관하여 고치현과 와카야마현, 나라현의 선진적인 활동사례도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의료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 공공교통의 유지가 중요하며 지역 만들기과 의료를 어떻게 정합시키는가 하는 나라현의 활동은 다른 지역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광자원을 지역 만들기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나아가서는 그 활동에 있어 주민과 지역기업들이 주체적으로 관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또는 현과 시가 어떻게 역할분담과 협동해

나갈 지와 같은 점이 화제가 되어 각 지방정부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참가지방정부 여러분들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대표·정부인정 관광카리스마

관광진흥을 테마로서 지역의 관광자원 및 지역의 장점을 홍보하는 방법, 우호도시와 관광협회와의 연계방법,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활동, 관광시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획 등 다양한 각도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강사로서는 각 지방정부의 활동과 의견을 롤 모델로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어느 지방정부가 선진 지역이랄 것도 없이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는 근본적인 면에서 동일하고 공통점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토의는 매우 유익하였다. 또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다양성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새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논의를 거쳐 관광산업이 지역의 비즈니스로서 수입을 얻는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관광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풍요로움과 지역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질만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참가자 전원이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 테마에 참가한 멤버들이 지역생활의 질을 높여,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관광진흥이며 지역 전체의 진흥과 지역 만들기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함께 지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동일한 성과와 결과를 응시하는 하나의 팀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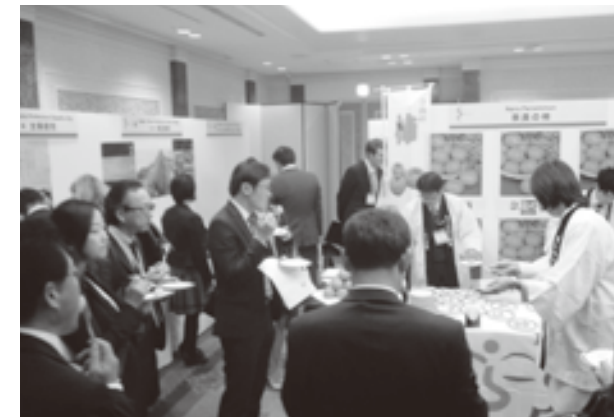
익스커션①



웰컴리셉션



지방정부소개코너



지사 초청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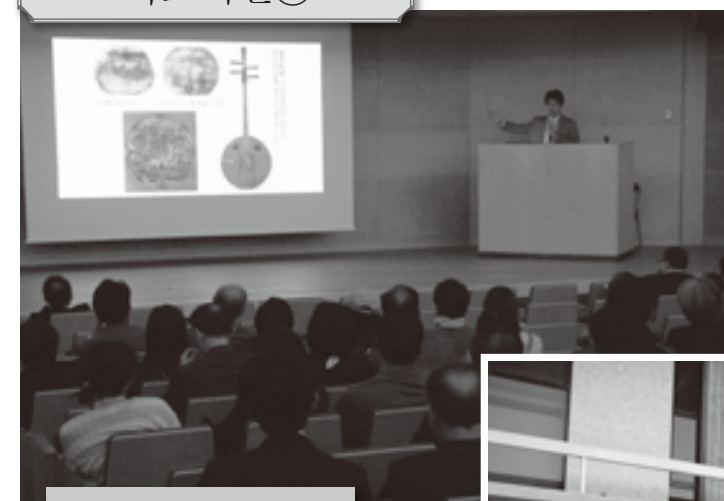
일반재단법인 일본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재단
대표이사 바히리디노프 맨슬



기념촬영



익스커션②



쇼소인전 (특별강연)



대고지키전

신문기사 -Media Coverage-

The 5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2014年10月29日(水) 朝日新聞
Oct.29,2014 (Wed.) Asahi Shimbun

第5回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観光・成長 6カ国議論

県主催の「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は28日、奈良市で開かれ、各国の地方自治体トップらが互いの施策を学び合った。

日中韓など6カ国の40地方自治体代表が参加。地域経済の振興、「まちづくり」「観光振興」の3つのテーマに分かれ、人口政策や人材育成など広範囲にわたって議論した。

「観光振興」には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などが参加。政府認定観光カリスマの山田桂一郎さんは「観光をビジネスと捉えるのではなく、質を高め、地域の幸せ、世界の豊かさにつなげねばならない。その認識を共有できた」と話した。

■参加した地方政府一覧

- 【中国】安徽省、山東省、潍坊市、東營市
- 【韓国】京畿道、忠清南道、公州市、瑞山市、慶尚北道
- 【ベトナム】フートー省、トゥアティエン・フエ省、ベッチ市
- 【インドネシア】ジョクジャカルタ特別州
- 【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
- 【日本】青森県、福島県、新潟県、福井県、山梨県、長野県、静岡県、三重県、京都府、和歌山県、鳥取県、島根県、徳島県、香川県、高知県、奈良県、宮城県多賀城市、新潟市、福岡県太宰府市、天理市、橈原市、御所市、斑鳩町、明日香村、広陵町、下市町

中国・山東省などが参加した「まちづくり」は政策研究大学院大学の森地茂が

らが、インドネシアのジョクジャカルタ特別州などが加わった「地域経済の振興」は日本総合研究所の漢谷浩介さんが、それぞれ進行役を務めた。2人は「高度成長のただ中にあるアジ

アの地方政府と、人口減少に直面する日本の自治体、事情はまったく違うのに驚くほど共通の問題が多く、取り得る政策にも共通点がある」と話した。

・忠清南道の副知事は「21世紀は東アジアの時代と言われ、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に地方政府の役割は大きい。このような会合を、今度は農業や農村政策といったテーマで開きたい」と、荒井正

吾知事は「今後は、テーマごとに1年間継続して議論し、総会で持ち寄るような形にできれば」と述べた。(討論の詳しい内容は、後日、紙面で紹介します) (栗田優美、浜田知宏)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の実務者討議で発表する各国の参加者



首長討議を終え、記者会見する参加者。いずれも奈良市

2014年10月29日(水) 奈良新聞
Oct.29,2014 (Wed.) Nara Newspaper

地域振興で切磋琢磨

東アジア 観光など議論活発 地方政府会合

東アジア地域で共通する課題について、議論を通じて相互理解を深める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県主催、総務・外務両省後援)は28日、奈良市三条本町のホテル日航奈良で開会式と首長レ

ベルのグループ討議などを行った。会員7カ国66地方政府のうち、6カ国40地方政府の代表が参加した。

討議テーマは「地域経済の振興」「まちづくり」「観光振興」の三つで、荒井正吾知事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の開会式であいさつする荒井知事。28日、奈良市三条本町のホテル日航奈良

も観光振興のグループで、活発な議論が行われ、に加わって発言するなれた。

荒井知事は「わが県は文化資源・文化財は持っているが、観光のマネジメントができていない。お金を求め過ぎる傾向があり、おもてなしがおろそか。決して模範的な観光地ではない」と「自批判」した上で「東アジアの観光はこれからのところ。きょう皆さんがそれぞれの地域で格闘している様子を聞かせてもらって大変参考になる」と述べ、お互いの切磋琢磨(せつさたくま)を確認し合っ

た。開会式に続いて行われたプレゼンテーションでは、ハンク・リム東アジア・アセアン経済研究センター学術諮問会議議長とジェニファ・スワンガ国連世界観光機関アジア太平洋

洋センター事業・広報部長が演壇に上がり、会合の意義を述べた。会合は27日に始まり、最終日のきょう29日は、奈良国立博物館の正倉院展と県立美術館の大古事記展を観覧する。

2014年10月29日(水) 朝日新聞
Oct.29,2014 (Wed.) Asahi Shimbun

首長ら課題を議論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日中韓などアジアの地方自治体関係者が共通の課題について話し合う「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28日、奈良市で開かれた。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を含めた6カ国の計40地方政府が参加。「地域経済の振興」「まちづくり」「観光振興」の各テーマに分かれ、首長らが議論を交わした。(詳細は来月の紙面で紹介します)

2014年10月29日 (水) 毎日新聞
Oct.29,2014 (Wed.) Mainichi Newspapers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奈良で40自治体
経済振興を議論**

東アジアの自治体が共通の課題を話し合う「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奈良県主催)の首長討議と実務者討議が28

東アジアの自治体は共通の課題を話し合う「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奈良県主催)の首長討議と実務者討議が28

奈良県が地域の政策課題について議論する「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28日、奈良市であった。6カ国、40地域の首長らが参加し、観光や人口減少対策などについて話し合った。

参加したのは国内の16府県、10市町村のほか、中国(2省2市)、インドネシア(1州)、マレーシア(1州)、韓国(3道、2市)、ベトナム(2省、1市)。地域経済の振興▽まちづくり▽観光振興―をテーマに協議した。

観光についてはスイスで観光振興に取り組む山田桂一郎氏を講師として招いて討議。山田氏は数ある観光地の中で生き残るには「顧客満足度」を第三者が客観的に評価して施策を考える重要性を指摘。ベトナムのフエ省の代表者は「観光政策は、政府や企業だけでなく地域住民が積極的に参加しなければ」と訴えた。

荒井正吾知事は記者会見で「会合は行政の質を高めることにつながる」と話した。

【宮本翔平】



記者会見する荒井正吾知事(手前左)ら
＝奈良市内のホテルで

2014年10月29日 (水) 日本経済新聞
Oct.29,2014 (Wed.) Nikkei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奈良で40自治体
経済振興を議論**

東アジアの自治体は共通の課題を話し合う「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奈良県主催)の首長討議と実務者討議が28

「富士山の5合目まで来て日帰りしてしまおう観光客が多い。いかに宿泊型観光に転換し、リピーターを増やすか苦心している」と述べた。難波壽司静岡県副知事は「住民が住んで良かったと思えるような地域でなければ観光客は来てくれない。社会総がかりで地域の魅力を高めるような取り組みが重要だ」と指摘した。

同会議は2010年から始まった。今回海外から参加したのは中国、韓国、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の14自治体で、日本国内からは26自治体に参加した。

2014年10月30日 (木) 産経新聞
Oct.30,2014 (Thu.) Sankei Shimbun

**共通の地域課題を討議
奈良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日本や東アジアの地方自治体の首長らが共通の地域課題について話し合う「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28日、奈良市内のホテルで開かれ、中国や韓国、ベトナムなど6カ国40の首長らが参加した。

平成22年の平城遷都1300年祭を機に毎年開催しており、今年で5回目。中国や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韓国、ベトナムなどの7カ国66地方自治体・自治体がメンバーで、今回は「地域経済の振興」「まちづくり」「観光振興」の3つのテーマについて討議が行われた。

「地域経済の振興」では、奈良県や明日香村、新湊市、ベトナム、ミャンマーなどの幹部職員や首長が参加。荒井正吾知事は「各テーマを主導する地域を決めて1年間議論した結果を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での討議結果について会見する荒井正吾知事ら＝奈良市



総会で報告してもらい、そこから議論することも検討したい」とし、今後の会合に発展性をもたせる考えを示した。

2014年10月29日 (水) 読売新聞
Oct.29,2014 (Wed.) Yomiuri Shimbun

**東アジアの
地域振興議論
奈良で国際会議**

県主催の国際会議「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28日、奈良市内のホテルで開かれた。中国やインドネシアなど6カ国、40地方自治体・自治体の約180人が参加。地域経済の自立など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

平城遷都1300年を記念して2010年から始まり、今年で5回目。地域経済の振興、まちづくり、観光振興の3テーマで議論した。

荒井知事は開会式で、「大きな市でも小さな町でも、地域振興や住民福祉の向上などの課題は共通している」と述べた。

参加者は3グループに分かれ、地域の歴史や文化を生かした観光客誘致や、地域経済を引っ張る人材の育成など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ベトナム・フエ省の幹部は「地元の自然を観光商品にした取り組みなどを参考にしたい」と話した。

2014年11月17日(月) 朝日新聞
Nov.17,2014 (Mon.) Asahi Shimbun

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奈良

日本、中国、韓国、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の40地方政府(自治体)の首長らが地方の課題を話し合う「第5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奈良県主催)が10月28日、奈良市のホテル日航奈良で開かれた。観光や経済振興策について活発に議論した。

国境越え 共に伸びる



森茂氏

連携や情報発信など課題

「まじのべり」は、中国・山東省、韓国・忠清南道、三重県、和歌山県などが、防災、文化、観光などの面から進める都市圏圏について議論した。政策研究大学院大学の森茂教授は、「人口減少社会のまちづくり」について解説し、内外の事例を交えながら地方の産物を売り出す「商店街の活性化」を生活サービスの向上——を提唱。自治体間の連携や鉄道会社の役割を語った。

奈良県大磯町の渡辺健市長は、住民と組織をつくり、県とも連携して駅前開発やサインなどに取り組んでいることを紹介し、「民間に元氣になっても

まじのべり



山田健一郎氏

足運びたくなる理由 必要

「観光振興」では中国・安徽省、韓国・京畿道、青森県、福岡県太宰府市などが魅力的な観光地づくりや地域連携について議論した。

政府認定観光カリスマの山田健一郎氏が、地方政府が取り組む観光事業の課題について語った。事業の目標が明確でないマ観光を経済の活性化につなげていない。市場調査が不十分——などの問題点を指摘した上で、「観光振興を推進するためには、足を運ぶ理由がなければ観光客は訪れない」と強調した。

地域の課題などについて、奈良県の渡辺正吉知事は「質の高いサービスで『リーダー』を育てたい。そのためには、官民の協力が欠かせない」と述べた。ベトナムのトゥアティエン・フエ省の代表者は「世界遺産



渡辺正吉・奈良県知事

◆この特集は東田優典、田田知宏、太田康夫、伊藤葉々子(写真)が担当しました。

地域経済の振興

「地域経済の振興」では、奈良県、新潟市、香川県、ベトナム・フートー省やベトナムなどの代表者が活性化に向けた各地の取り組みを話し合った。

進行役を務めた日本総合研究所の森谷浩介主任研究員は、内外の人口増減問題を解説した。人口が増えているアジアの国でも将来は少子高齢化が問題化する可能性を指摘したうえで、経済を成長させるための多岐にわたる取り組みを挙げて、税金を高く増やすのではなく、税金は子育てや教育のために有効に使うことが大切——と強調した。

ブランド力で少子化防ぐ



森茂氏

インドネシア・ジョジャカルタ特別州のスピスティ・クリスティヤナ氏は、貧困地区の女性グループに地方自治が起業資金を貸し出す事業を報告。ボランティアの専門家が機織の付け方を教える。約40のグループが伝統のろうけつ染め「パティック」や農業などに取り組んでいると述べた。

奈良県明日香村の森川裕一町長は、修学旅行生や海外の学生が村内の農家に宿泊する事業を説明。昨年度約400人だった海外からの宿泊者が今年度、約600人に増えたという。

7カ国の66地方政府(自治体)が加入

2010年の平成基盤1300年を機に奈良県の呼びかけで始まり、地方に共通する課題や振興策などを話し合ってきた。行政能力を高め、国家間の外交を補いながら互いの友好関係を深めるのが目標。現在、中国、韓国、ベトナム、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日本の計66地方政府(自治体)が加入している。

参加した地方政府 【中国】安徽省、山東省、瀋陽市、東營市 【韓国】京畿道、忠清南道、公州市、瑞山市、慶尚北道 【ベトナム】フートー省、トゥアティエン・フエ省、ベトナム市 【インドネシア】ジョジャカルタ特別州 【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 【日本】青森県、福島県、新潟県、福井県、山梨県、長野県、静岡県、三重県、京都府、和歌山県、鳥取県、島根県、徳島県、香川県、高知県、奈良県、宮城県多賀城市、新潟市、福岡県太宰府市、天理市、橿原市、御所市、斑鳩町、明日香村、広陵町、下市町(以上、奈良県) 【ミャンマー】マグウェイ地域政府(ゲスト参加)

活動報告



東アジア・アセアン経済研究センター ハンク・リム氏

本館がジャカルタにあり、参加国の政策研究、提言を目指した活動をしている。東アジア地域の平和と繁栄に貢献した企業や団体を顕彰する「アジア・アセアン・リーダー賞」がその取り組みの一つだ。奈良県のリーダーシップ

全体の発展 地方が担う



アアジアへの旅行者急増

国連世界観光機関 アジア太平洋センター ジェニファー・スタンガ氏

1980年代は世界の海外旅行者数はわずかだったが、この増加は続け、2012年には10億人を超えた。その「市場」の中心はヨーロッパだったが、いま急速に伸びているのはアジア太平洋地域だ。10年には2億400万人が訪れると予測され、30年には3億5000万人に達すると見込まれている。「アジア太平洋・アセアン」はすでに始まっている。国連世界観光機関は1985年の設立で、様々な統計調査を行い、市場の動向やトレンドを分析し、情報交換している。官民連携などで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し、観光産業を活性化させ、文化や経済の発展、環境問題の解決などに貢献したいと思



会合では地方自治の課題などが語られた
＝いずれも、奈良市三本木町